스몰캡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바디텍메드	Not Rated (M)	- (M)
메디아나	Not Rated (I)	- (I)

동물농장 시청률을 아시나요?

동물농장 시청률은 아시나요?

동물농장의 시청률은 아십니까? 동물농장의 시청률은 국내 반려가구 및 예비 반려가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척도라고 생각된다. 8월 셋째주(8/11~17일) 기준으로 동물농장의 시청률은 5.2%였다. 동물농장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인 지상파 작품은 지상파 기준 15개에 불과하다. 종편과 케이블까지 범위를 넓혀도 16개 작품이다.

반려동물 수 및 가구 증가 추세

KB경영연구소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반려동물가구수는 591만가구로 연평균(19~24년) 2.2% 증가했으며, 19년(531만가구) 대비 11.3%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반려가구 비중도 19년 26.2%에서 24년 26.7%로 0.5%P 상승했다.

반려동물가구수 및 동물수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2021년 61.6%→2023년 62.7%→2025년 74.2%로 지난 4년간 12.6%P 개선되었다. ②2024년 비반려가구에서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을 밝힌 비중은 37.6%로 계획없음(35.6%) 대비 높은 수치이다. ③연령대별 양육계획 있음 응답 비중에서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48.6%를 보였다. 20대부터 반려동물 양육 시 장기간 반려동물 양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반려동물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진단기기 성장 요인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25년 반려가구의 양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심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7.3%으로 2023년(86.4%) 대비 0.9%P 증가하였다.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이다. ②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치료비가 상향(21년 33.3만원→25년 102.7만원)되고 있다.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상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③반려동물 치료비의 지출처 순위를 살펴보면 정기/장비 검진이 가장 높으며, 최근 2년간 동물병원 내원 이유 중 검진/예방 접종의 방문횟수는 23년 2.8회에서 25년 4.1회로 증가, 질병/질환은 23년 2.7회에서 25년 4.4회로 증가했다. 검진 시 기본적으로 진단기기 등이 사용된다. ④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18년 0.1%→1H24 1.7%)이 상향되고 있다. 보험 가구 증가는 반려동물 치료비 절감 → 검사항목 확대 →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반려동물 ODM/OEM 기업

반려동물 진단기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ODM/OEM을 협업을 통해 진출하는 방식이 용이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련 기업인 반려동물 진단제품 납품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바디텍메드(206640)와 반려동물용 모니터 및 감시장비 제품을 진행하는 메디아나(041920)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동물농장 시청률은 아시나요?

동물농장의 시청률은 아십니까? 동물농장의 시청률은 국내 반려가구 및 예비 반려가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척도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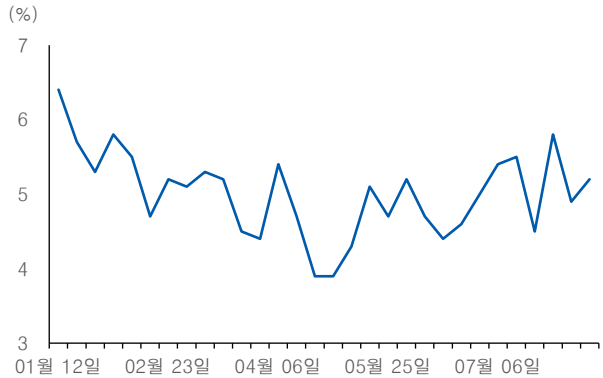
8월 셋째주(8/11~17일) 기준으로 동물농장의 시청률은 5.2%였다. 지상파 기준 시청률 1위는 화려한 날들(일일드라마)로 13.2%였다. 그 뒤를 미운우리새끼(예능, 13.1%), 대운을 잡아라(일일드라마, 10.5%)가 이었다. 동물농장의 2025년 평균시청률은 5.0%이며, 최저 3.9%이며, 최고는 6.4%이다. 꾸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농장의 방영시간은 일요일 오전 9시 30분이다. 전국노래자랑(6.1%)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위 프로그램은 프라임 시간대(20~22시)에 방영된다.

동물농장보다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는 지상파 프로그램은 15개에 불과하다. 종편과 케이블과 비교하면 더욱 체감할 수 있다. 종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은 에스콰이어: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토일 드라마, 7.4%)이며 동물농장보다 유일하게 시청률이 높은 작품이다. 케이블 채널 기준 동물농장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에서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이다. 과거 사용되었던 애완동물(Pet)의 의미는 인간이 주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의미했다면 반려동물은 동물을 가족/친구/사람처럼 대한다. 개집사, 냥(고양이)집사 라는 표현이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서비스(유모차, 의류, 보험 등)들이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 G마켓에 따르면 1Q23~3Q23 기준 반려동물 유모차가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추월했다는 기사가 주목받은 적이 있다. 24.9월에는 이마트 일부 점포에서 개와 고양이에게 입힐 반려동물용 한복이 유아용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기사가 있었다. 출생인구 감소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증가가 결합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차트 1] 2025 년 동물농장 시청률 추이(3.9~6.4%)



자료: 닐슨코리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대수 > 유아용 유모차 판매대수

자료: G 마켓,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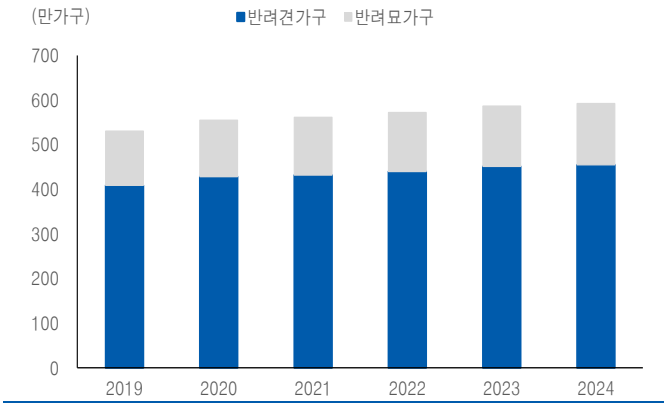
반려동물 가구 및 수 증가 전망

As-Is

KB경영연구소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반려동물가구수는 591만가구로 연평균(2019~2024년) 2.2% 증가했으며, 2019년(531만가구) 대비 11.3%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반려가구 비중도 2019년 26.2%에서 2024년 26.7%로 0.5%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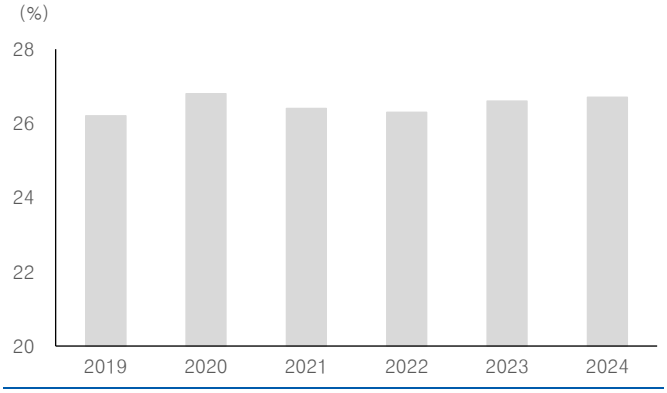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분해보면, 반려견은 2019년 512만마리에서 2024년 546만마리로 연평균 1.3%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려묘는 2019년 179만마리에서 2024년 217만마리로 연평균 3.9% 늘었다.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살펴보면 더욱 확연히 차이가 확인된다. 반려견의 경우 2023년 556만마리에서 2024년 546만마리로 1.7% 감소한 반면, 반려묘의 경우 2023년 199만마리에서 2024년 217만마리로 9.2% 증가했다. 반려묘에 대한 반려동물가구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트 2] 연도별 반려견/묘 가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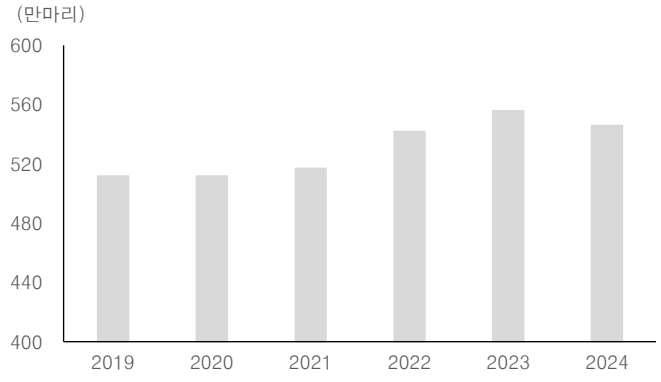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3] 연도별 전체 가구 중 반려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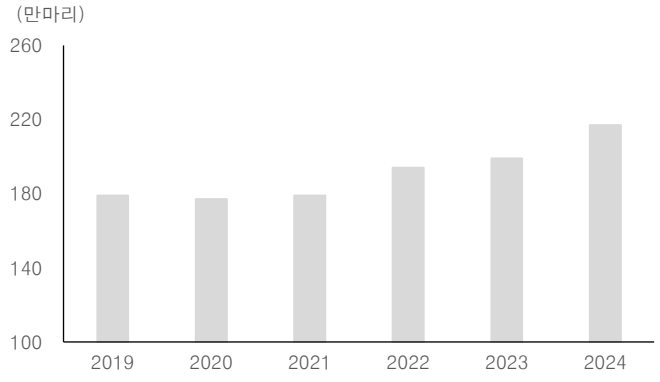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4] 연도별 반려견 마릿수 추이: 연평균 1.3% 증가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5] 연도별 반려묘 마릿수 추이: 연평균 3.9% 증가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To-Be

반려동물 수와 가구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2021년 61.6%에서 2023년 62.7%로, 2025년에는 74.2%로 상향되었다. 즉, 지난 4년간 12.6%P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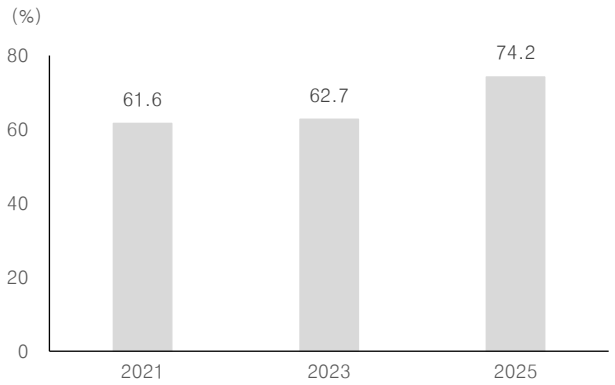
둘째, 2024년 비반려가구에서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을 밝힌 비중은 37.6%로, 없다라고 밝힌 비중(35.6%) 대비 2.0%P 높은 수치이다. 잘모르겠다 비중의 절반을 양육계획 의사로 감안할 경우 비반려동물가구의 50% 이상 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의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연령대별 **양육계획 있음**의 응답 비중에서 20대 비중이 48.6%로 가장 높았다. 20대부터 반려동물 양육 시 반려동물 양육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반려동물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로얄캐닌(펫푸드 브랜드)과 밴필드(동물병원)의 2023년 연구(미국 최초 반려동물 기대수명 연구)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반려견과 반려묘 239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①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대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②반려견의 경우 소형견이 대형견 대비 기대수명이 길다. ③반려묘가 반려견 대비 기대수명 증가폭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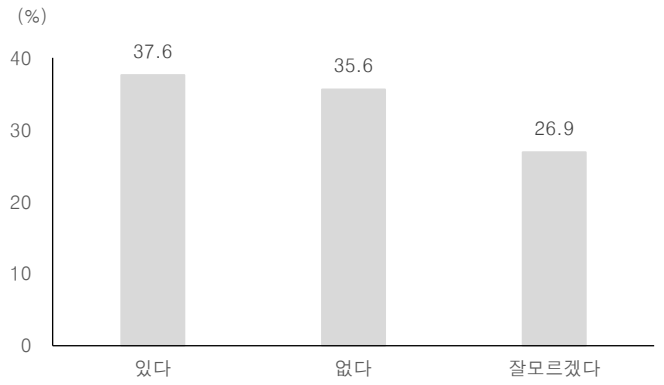
국내 반려가구에서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을 선호하며, 반려묘에 대한 수요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국내 반려동물 기대수명 상승폭은 미국 대비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 6]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지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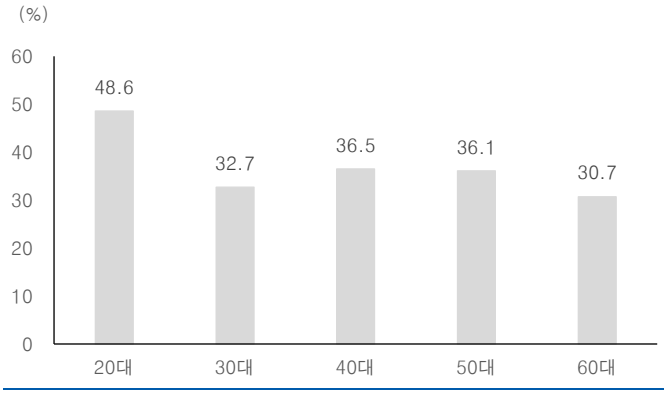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7] 비반려가구의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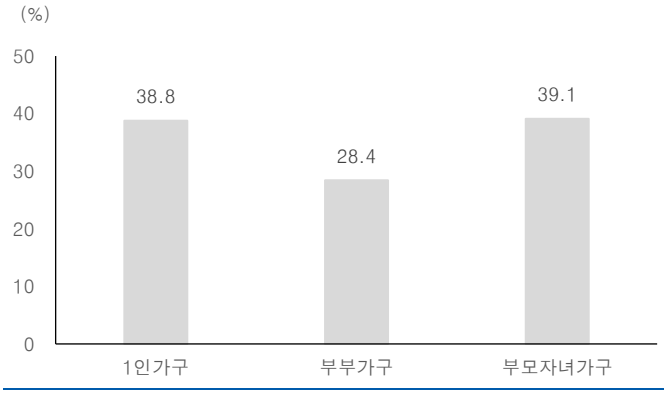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8] 연령대별 양육 계획 있음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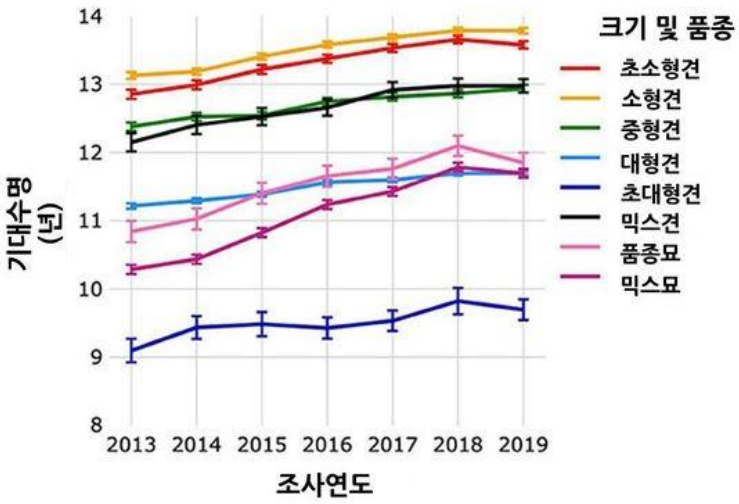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9] 가구유형별 양육 계획 있음 응답 비중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0] 美 반려동물 기대수명 추이



자료: 로얄캐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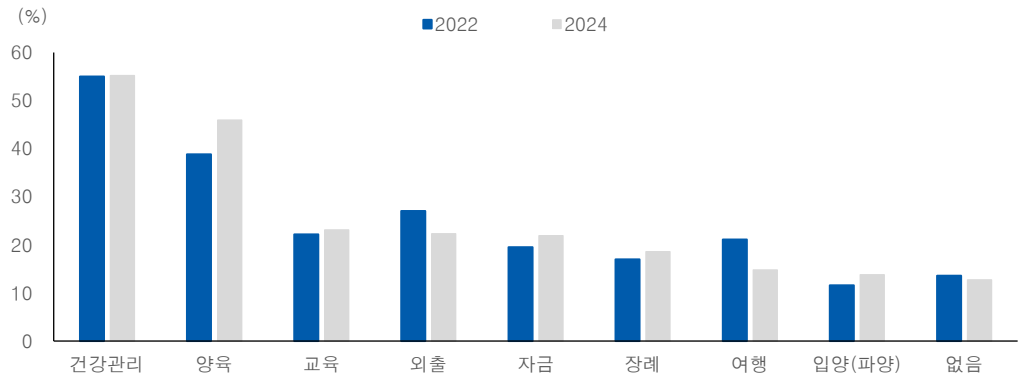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 시 최대 관심사는 건강

2025년 반려가구의 양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심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7.3%에 달한다. 2023년(86.4%) 대비 0.9%P 증가하였다.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이다. 2025년 55.2%으로 2023년(55.0%) 대비 0.2%P 개선되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비교해보면 반려견은 53.3%, 반려묘는 57.7%이다. 반려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2023년에도 반려견은 52.6% VS. 반려묘는 62.2%이다.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관심사는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방법이 59.1%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질병 진단 후 케어방법(56.2%), 이상행동 시 케어방법(31.9%), 비만 케어방법(24.3%) 순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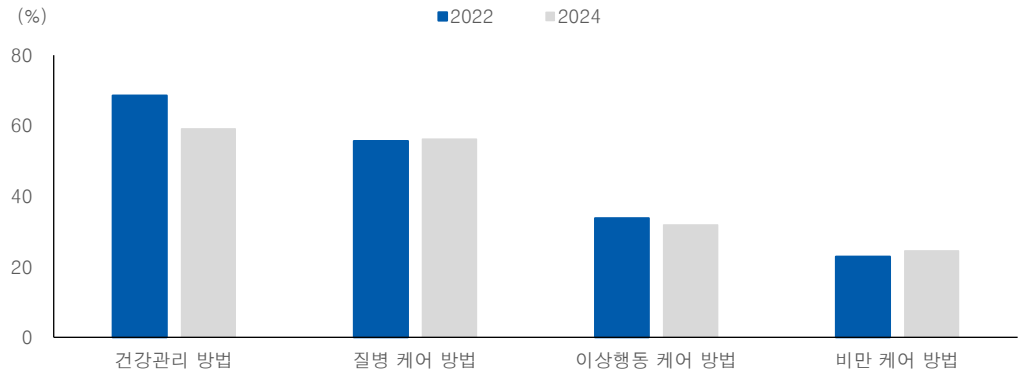
즉,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건강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반려동물의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가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차트 11]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2]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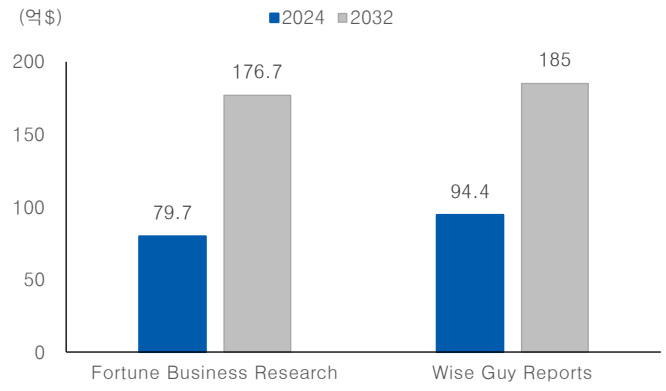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려동물 진단기기 성장 요인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반려동물 진단기기 산업에 대해서 향후 연평균 8~10% 성장률을 전망한다. Global View Research 에 따르면 전세계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은 2024년 107.1억달러→2030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 는 2024년 79.7억달러에서 2032년 176.7억원으로 연평균 10.5% 성장률을 제시했다. Wise Guy Reports 는 2024년 94.4억달러에서 2032년 185.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을 8.8%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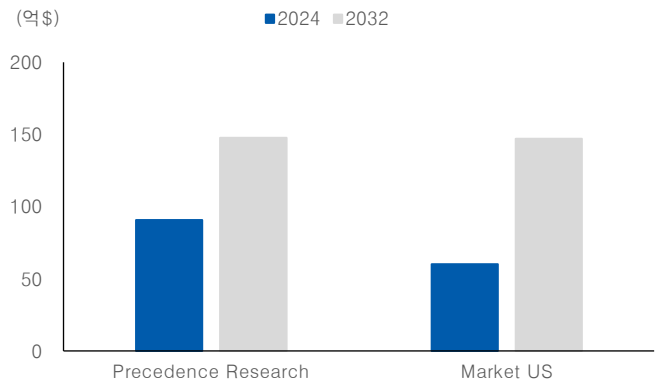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수명 역시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사 중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 진단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 13]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 전망I



자료: Fortune Business Research, Wise Guy Repor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4]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 전망II



자료: Precedence Research, Market u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첫째, 반려동물 치료비 증가

반려동물 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의 중요성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33.3만원에서 2025년 102.7만원으로 4년만에 3.1배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는 32.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인 반려가구는 2021년 32.0%에서 2025년 48.2%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1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21년 10.8%에서 2025년 26.2%로 15.4%P 상승되었다.

최근 치료보다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발병 이후 치료가 진행될 경우 이미 손상 혹은 합병증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예방이 치료대비 낮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비용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 역시 동일하다. 즉, 진단기기를 통해 질병여부를 조기 확인 시 동물의 건강 유지에 대한 연속성뿐 아니라 반려가구의 재정적 부담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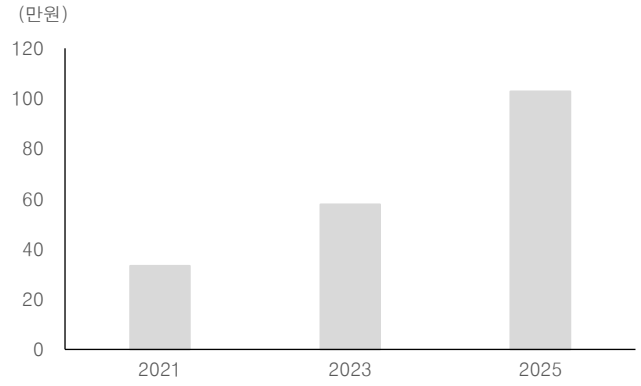
둘째, 검진횟수 증가

반려동물 치료비의 지출처를 살펴보면 정기/장비 검진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피부 질환 치료, 사고/상해치료 등이다.

최근 2년간 동물병원 내원 이유 중 검진/예방 접종의 방문횟수는 2023년 2.8회에서 2025년 4.1회로 증가했으며, 질병/질환은 2023년 2.7회에서 2025년 4.4회로 증가했다. 검진에는 필수적으로 진단기기가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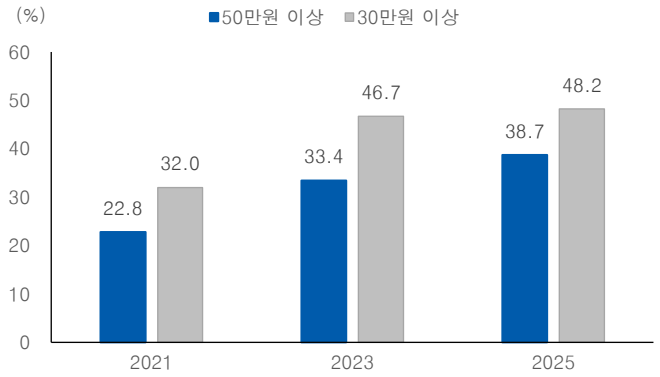
검진횟수의 증가는 건강과 관련된 진단의 횟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트 15] 최근 2 년간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치료비: CAGR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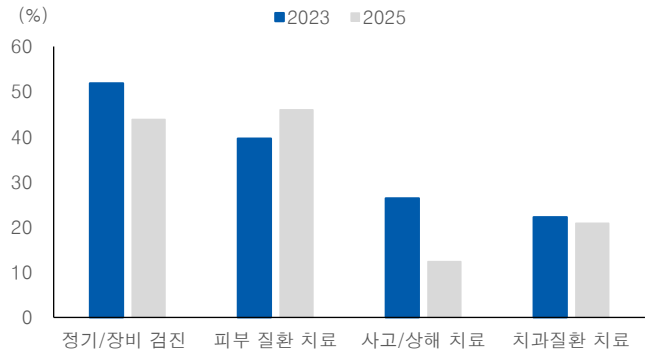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6] 금액별 반려동물 치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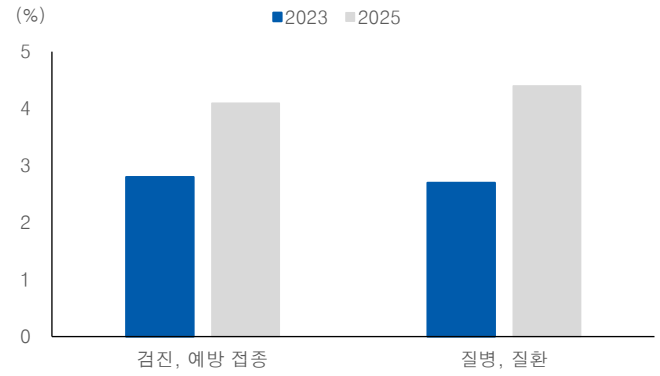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7]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처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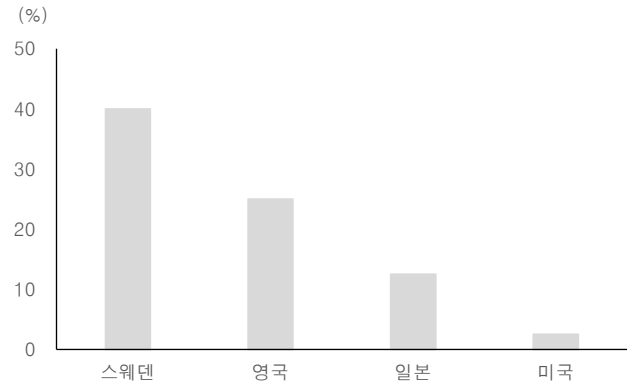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8] 최근 2 년간 동물병원 내원 이유별 방문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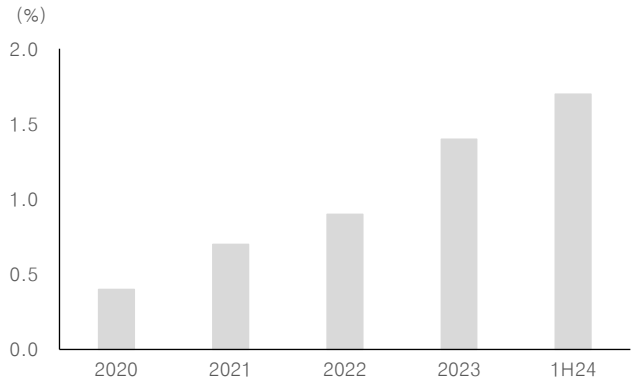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19] 국가별 반려동물 보험 침투율(2022 년)



자료: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20]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추이



자료: 언론보도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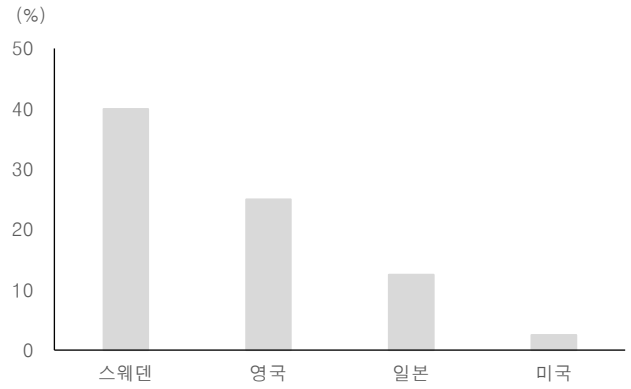
셋째, 반려동물 보험채택 인구 증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상향되고 있다. 2018년 0.1%에서 2020년 0.4%, 2023년 1.4%로 5년간 1.3%P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 1.7%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스웨덴은 40%, 일본은 25%의 비율로 반려동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반려동물 보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반려견 중 9세 이상의 노령견이 전체 반려가구의 41.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려동물 치료비가 2021년 33.3만원에서 2025년 102.7만원으로 연평균 3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려동물 기대수명도 늘고 있다. 보험을 통해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Care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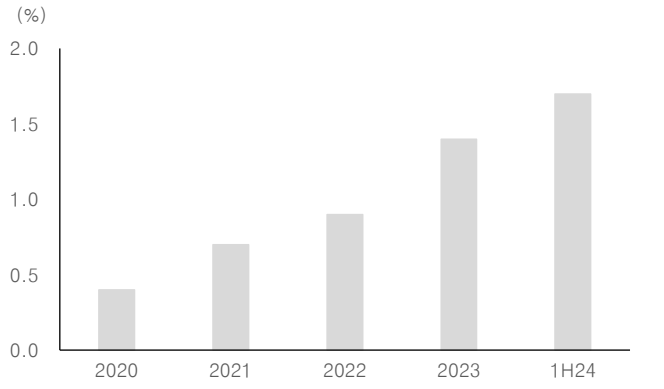
보험 가구 증가는 반려동물 치료비 절감 → 검사항목 확대 →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트 21] 국가별 반려동물 보험 침투율(2022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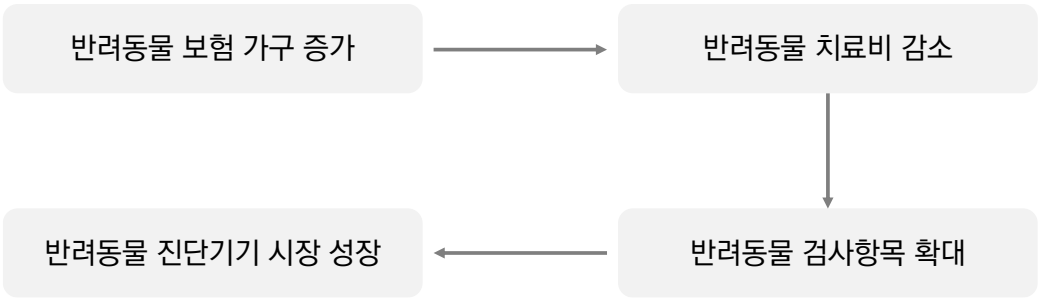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22]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추이



자료: KB 경영연구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반려동물 ODM/OEM 기업

지난 5월 8일 [K-체외진단,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대]라를 보고서에서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작성했다. 특히, 국내 진단기업들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보다 ODM/OEM 계약이 가능성이 높으며, 유효하다는 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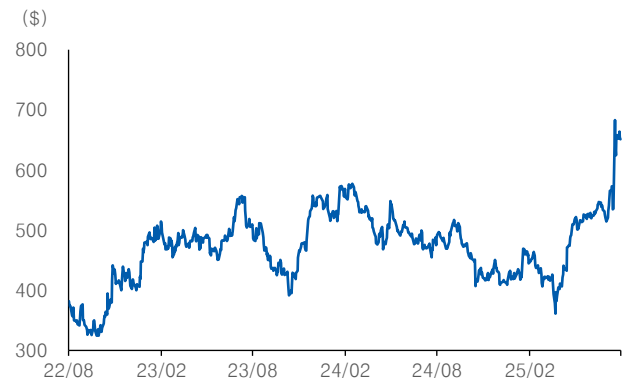
반려동물 진단기기 시장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①국내 반려동물 진단기기 기업들이 미국에서 글로벌 Top Tier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체력적으로 Mismatching이다. 미국 내 반려동물 진단기기 Top Tier 기업은 IDEXX Laboratories Inc.이다. 반려동물 미국 내 진단기기 시장 점유율이 65%(2024년 기준)로 추정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50% 내외의 점유율로 추산된다. 2위 기업은 Zoetis(조에티스)로 20~30%의 점유율로 추산된다.

참고로 IDEXX의 2024년 매출액은 39.0억달러, 영업이익은 11.3억달러이다. 원/달러 1,400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액 5.5조원, 영업이익 1.6조원에 달한다.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구축되어 있는 산업구조 내 투자여력이 적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 및 경쟁하기 어렵다.

②IDEXX와 Zoeits의 경쟁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Zoetis는 동물용 의약품에서는 IDEXX 대비 점유율이 높지만, 진단기기에서는 반대인 상황이다. Market Research Reports에서는 2022년~2030년 성장률로 연 8.9%를 제시했으며, Fortune Business Insights에서는 8.6%(2024~2032)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즉, Top2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며, 북미 시장 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려동물 진단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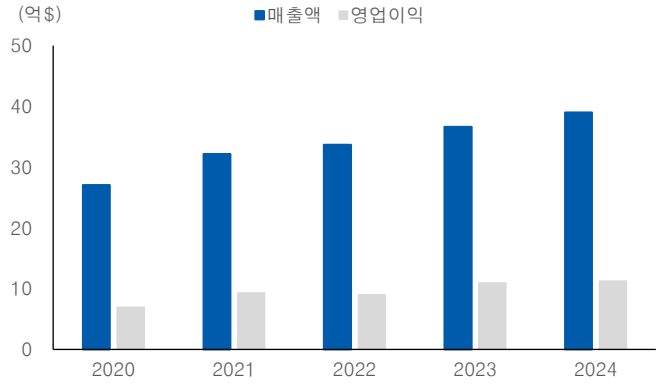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 A/S 대응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글로벌 Top Tier 기업과의 협업이 진행될 경우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등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바디텍메드(206640), 메디아나(041920) 등이 있다. 바디텍메드는 미국 반려동물 진단제품 납품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메디아나는 반려동물용 모니터 및 감시장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미국기업과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차트 23] IDEXX Laboratories Inc.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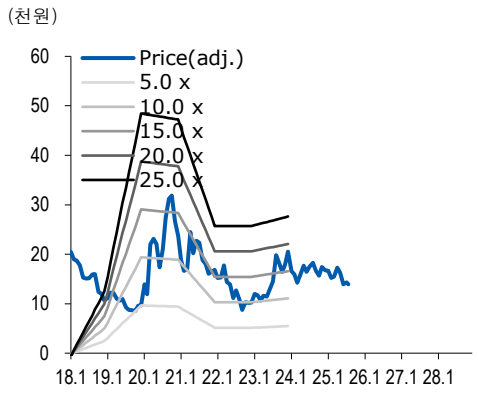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24] IDEXX Laboratories Inc.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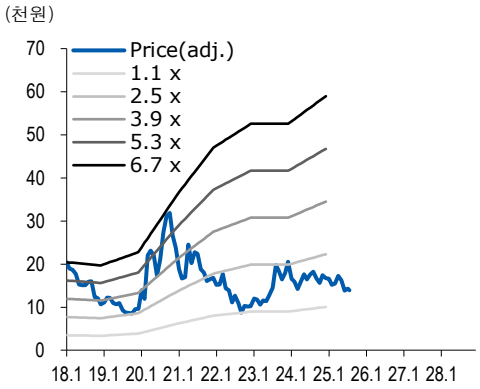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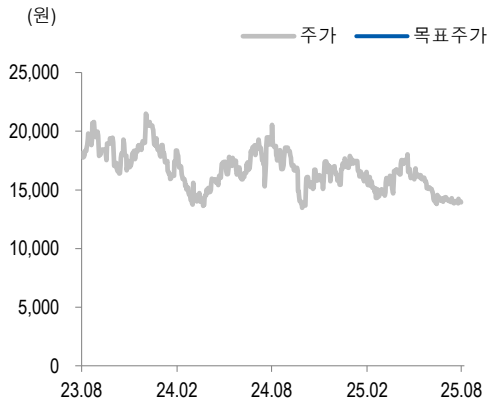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바디텍메드 (206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8-19	Not Rated	-	1년		
2025-04-24	Not Rated	-	1년		
	담당자변경				
2024-08-0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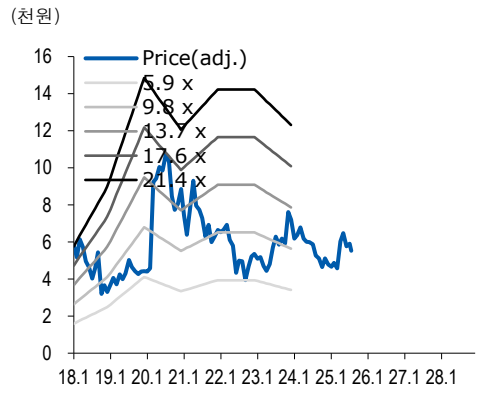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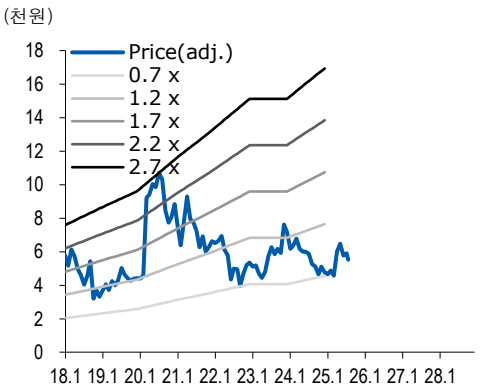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5-08-18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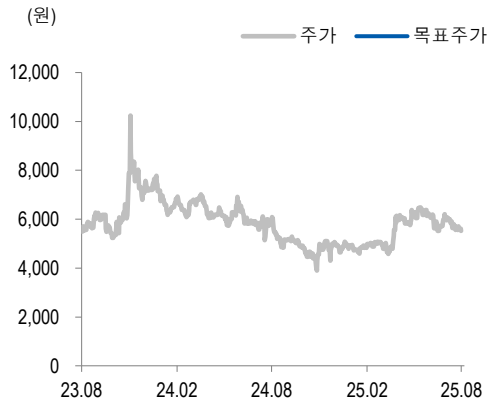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메디아나 (0419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8-1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8-18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